

금융권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논의 결과

□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련

- 금융권 노사정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 우려가 큰 상황에서,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사업장 방역을 철저히 하고 언택트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.

* 영업점·콜센터 등 밀집사업장 방역철저 및 근무환경 개선, 재택근무 확대 등을 통한 업무연속성 유지 등

- 금융권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책이 일선 금융기관에서 민생·고용 안정이란 본래 목적에 맞게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.

□ 금융권 노사정간 지속적 소통·협력 강화 관련

- 금융권 노사정은 가장 크고 빠르게 진행되는 금융산업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(agile) 대응하기 위해, 정례적인 협의채널을 통해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.
- 금융당국은 금융정책 수립 과정에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80만 금융산업 종사자를 대표하는 양대 금융산업 노조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.

□ 최근 금융권 현안 관련

- 금융권 노사정은 퇴직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, 금융기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.
- 금융권 노사정은 잇단 금융사고 피해 최소화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자고 다짐하였습니다.

- 금융권 노사정은 기후변화와 팬데믹, 고령화와 양극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도전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.
- 이에 금융권 노사는 그린뉴딜 정책 지원, ESG·임팩트 투자 확산, 금융권 노사 공동 공익재단 활용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.

□ 기타 제언

- 금융권 양대 노조 측은 최근 금융권 현안에 대해 금융당국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.
- 금융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글로벌 금융허브 경쟁과 금융 소비자 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고, 먼저 지방은행 등 지역거점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.
- 또한,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고,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공정 경쟁 및 소비자보호 대책 마련도 주문하였습니다.
- 금융업계는 금융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노조측에 환경변화를 반영한 신속한 규제개선 등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.
- 금융당국은 디지털화, 비대면화 등 환경 변화 속에서 금융권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당부하면서,
 -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